

지역 소식 통

고창읍성 한옥복합 문화공간 본격 운영

‘2천만 관광도시 달성’을 목표로 한 전북 고창군이 고창읍성 한옥복합문화공간을 개관하고 군민과 관광객을 맞는다. 특히 문화공간 개관으로 고창읍성(보양성) 일원은 공원관람, 문화예술체험, 전시·판매, 감성숙소가 지 완성되며 고창관광의 중심으로 도약한다.

지난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보양갤러리에서 ‘고창읍성 한옥복합문화공간 개관식’을 열었다.

한옥복합문화공간은 고창읍성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기증작품 전시관인 ‘보양갤러리’와 고창군 공식 캐릭터 굿즈샵인 ‘모로하우스’로 구성됐다.

‘보양갤러리’는 고창군미술관이 소장한 기증작품을 군민과 관광객에게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모로하우스’는 고창군 캐릭터 ‘고창이와 친구들’ 굿즈를 선보이는 굿즈샵이다. 다양한 굿즈로 채워져 있다. 한옥복합문화공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보건소, 피서지

통합 건강증진 캠페인

부안군보건소에서는 지난 6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내 대표 피서지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피서객과 군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통합 건강증진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주요 관광지인 변산해수욕장, 고사포해수욕장, 격포해수욕장을 비롯해 격포여객선터미널 일원에서 진행하며, 물놀이객과 피서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건전한 금연·금주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함께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감염병(진드기, 수인성·식품 매개)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집중 안내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동물의약품 산업 거점 구축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투자협약... 동물의약품 산업 구축 속도

정읍시가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를 발판 삼아 관련 기업 투자와 연구개발 기반을 확대하며 미래 동물의약품 산업 거점 구축에 속도를 낸다.

시는 지난 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투자협약식’에서 특구 참여기업인 (주)케어사이드, (주)닥터아이엔비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전북자치도와 정읍시, 익산시를 비롯해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11개사가 참석했다. 참석 기관과 기업들은 특구 지정에 계기로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두 기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정읍시와 익산시 일원에서 추진된다. 주요 사업은 △동물용 첨단 생명공학 의약품과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실증 △자가백신 대상 품목 확대 실증 △동물용 의약품 독성시험 제출항목 면제 실증 등이다.

이를 통해 기존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신기술의 검증 기회를 넓혀 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앞당기고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그동안 ‘반려동물 의약품 개발

및 심용화 플랫폼 구축사업’,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며 기업 지원과 연구개발 기반을 꾸준히 확충해 왔다. 국가독성과화연구소 등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동물의약품 안전성 평가와 실증 기반도 강화하는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공을 들여 왔다.

이학수 시장은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정읍이 미래 동물의약품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케어사이드와 닥터아이엔비를 비롯한 참여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 동물의약품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의 미래, 시민이 직접 정한다’

정읍지속가능발전정책포럼 시민원탁회의...100여명 모여 6대 의제 논의

“정읍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최근, 수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정읍지속가능발전정책포럼 시민원탁회의’를 열고 정읍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지역 문제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이용환 협의회 상임대표, 이남희·김경란·한선미·김영현 시의원 등이 참석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청년과 고령층, 다문화가족, 소상공인, 농업인, 사회단체·환경·교육 관계자 등 다양한 시민들은 10개 원탁으로 나뉘어 지역 현안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지역 문제 진단, 해결방안 제안, 우선과제 선정과 발표 순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주요 의제는 △청년들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정읍 △나이가 들어도 생활이 쫓겨 않는 정읍 △농촌이 지속되어야



정읍이 지속된다 △스마트시는 관광에서 머무는 지역경제로 △기후위기에 안전하고 탄소를 줄이는 정읍 △자연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환경교육도시 정읍 등 6개 분야다.

참가자들은 일자리·주거·문화를 연계한 청년 정착, 의료·돌봄·교통을 아우르는 고령사회 안전망, 지속가능한 농촌, 체류형 관광,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용환 상임대표는 “오늘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일회성 토론으로 끝내지 않고, 시민이 공감하고 행정과 민간이 함께 실행할 수 있는 정책과제로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보완해 시민 정책제안서로 작성한 뒤 정읍시와 시의회,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정책 반영과 민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광복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고창군지회 개소

‘광복 81주년’ 앞두고... 독립운동 정신 잇는 구심점 역할 기대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의향(義鄕) 고창군에 광복회 지회가 결성돼 지역의 항일독립운동 역사와 애국정신을 알리게 됐다.

지난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6일) 오후 고창군 보훈회관에서 ‘광복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고창군지회 개소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박성만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이강안 광복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장,



국가보훈부 전북서부보훈지청,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도·군의원, 관내 보훈단체장, 기관·사회단체장, 광복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영상 상영을 시작

으로 국민의례, 광복회 고창군지회 설립 경과보고, 지회장 임명장 및 지회기 수여, 유공자 표창, 기념사와 축사, 만세삼창, 광복절 노래 제창,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고창군은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찾아내 국가보훈부 서훈을 추진하는 등 독립운동사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힘써왔다. 그 결과 광복81주년을 앞두고 광복회 고창군지회 설립으로 이어져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지역 구심점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

고창군은 보훈단체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훈단체 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해 건강·치유 프로그램과 문화·여가 활동 등을 지원하며,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보훈단체 간 화합을 도모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조기 소진... 하반기 270대 추가 보급

18~21일 신청 접수

정읍시가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조기 소진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35억원을 편성해 하반기 270대를 추가 보급한다.

시는 고유가로 전기자동차 구매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상반기 보조금 예산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200

대와 전기화물차 67대, 전기승합차 3대다. 앞서 시는 상반기에 전기승용차 199대와 전기화물차 91대 등 모두 290대의 구매를 지원했다.

차종별 최대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1210만원, 전기화물차 1750만원, 전기승합차 1억4000만원이다. 실제 보조금은 차량의 종류와 성능,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신청받는다. 전기승

합차는 9월 1일부터 별도로 접수한다.

구매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누리집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이 몰려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접수가 예정일보다 일찍 마감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행정현장 경험한 정읍 대학생들과 소통

이학수 시장과 청년 시정대화... 대학생 아르바이트 간담회 개최

정읍시가 여름방학 동안 시정 현장을 직접 경험한 대학생 41명과 머리를 맞대고 청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정읍과 행정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다.

시는 지난 7일 오전 11시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4주간 지역아동센터와 도서관, 국민여가캠핑장 등 다양한 현장서 근무한 대학생 경험을 공유하고 시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대학생 2명의 근무 소감 발표를 시작으로 이학수 시장과의 대화,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시민을 직접 만나고 행정 업무를 보조하면서 느낀 보람과 지역사회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경험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방상윤 부군수 주재 주요 업무 보고회 개최

부안군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군청 중회의실에서 방상윤 부군수 주재로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하고 군정 주요 현안과 핵심사업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군정 전반의 업무를 신속히 파악하고 주요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업무와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민선 9기 핵심사업의 추진방향, 부서간 협업 체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보고회에서 도출된 부서별 현안과 정책과제는 전북특별자치도와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정책 건의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도비 확보와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의 자연

고유생물의 서식지

고창 갯벌

고창갯벌은 곰소만에 넓게 형성되어 있는 갯벌로 세계 최고수준의 저서규조류 생물종을 보인다. 또한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최대 서식지로 유명하다.

고창갯벌은 약 194종의 저서규조류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바지락과 동족이 서식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또한 고창갯벌은 100여 종, 20만 마리의 물새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중 IUCN 적색목록 21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EN등급)인 황새의 국내 최대 월동지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전 세계 1종 1속만 존재하는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기도 하다. 고창갯벌에는 갯벌 위아래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사질 퇴적체인 셰니어(Chener)가 관찰된다.

셰니어는 자갈, 조립질 모래와 조개껍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의 영향을 받아 육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셰니어는 갯벌에 둘러싸여 있으며, 바닷물에 잘 잠기지 않아 철새들의 동지 및 휴식처의 역할을 수행한다.

- 출처: 유네스코 한국의 갯벌 -



전주매일 캠페인